

갈조류 추출물 기술이전 나서

식품연, 휴림과 협약 체결... 수면 질 개선 도움 주는 천연 식물성 소재로 '주목'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최근 (주)휴림과 갈조류(감태) 추출물을 포함하는 수면 유도 및 개선용 조성물 기술이전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최근 (주)휴림과 갈조류(감태) 추출물을 포함하는 수면 유도 및 개선용 조성물 기술이전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식품연에 따르면, 기능성소재연구단 한대석 박사 연구팀은 제주 청정 지역에 서식하는 감태에서 소재를 찾아냈으며 동 소재는 수면 중 호흡 장애지수 감소, 잠든 후 깨어있는 시간의 감소, 수면시간 및 수면안정성의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태추출물은 2015년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서 수면개선 건강기능 식품으로 개별인정 받았다.

식품연은 현대인의 고질병인 불면증을 부작용 없이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천연 식물소재 연구 기술을 이전해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수면 건강기능식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박동준 한국식품연구원장은 "수면은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생리현상으로 질 높은 수면을 취하게 되면 면역력, 자가치유능력, 수명 등을 증대시키고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낮출 수 있다"며 "개발된 소재를 통해 국민의 수면건강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싱싱한 꽃으로 따뜻한 겨울을”

aT, 포인세티아 등 겨울 대표 꽃·식물 선정

올 겨울을 대표하는 꽃과 식물에 '백합'과 '라넨플러스', '포인세티아'와 '칼라코에'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꽃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계절 꽃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9 겨울시즌 꽃과 식물 4종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꽃향기가 은은하고 색과 모양이 우아해서 꽃의 귀족이라 불리는 '백합'은 결혼식장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꽃으로도 많이 활용되며 순우리말로 '나리꽃'이라고 불린다.

결경의 꽃잎이 매력적인 '라넨플러스' 역시 화려한 꽃 모양과 다양한 컬러로 신부용 부케뿐만 아니라 선물용 꽃다발에도 빠지지 않고 애용되는 인기 만점 꽃으로 매력, 매혹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포인세티아'는 특유의 붉은 잎으로 크리스마스시즌 대표식물로 특히 인기가 좋다.

암증맞은 작은 꽃송이로 사랑받고 있는 겨울철 다육식물인 '칼라코에'는 특히 공기정화와 기승효과



포인세티아

가 뛰어나 겨울철 실내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가꿔줄 뿐만 아니라 가족 건강도 돕고 지킬 수 있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식물이다.

이원기 aT 화훼사업센터장은 "겨울철 환기가 어려운 답답한 실내공기를 작은 식물화분 하나와 한 다발의 꽃만으로도 싱그럽게 유지할 수 있다"며, "화병의 물에 락스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더 오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12월 전북지역 중기 경기전망지수 2.0p ↑

89.3p으로 전월대비

연말 맞아 경제 활력

모멘텀 부재로 포함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전북중소기업회장 두완정)가 지난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북지역 소재 1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전북지역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9.3으로 전월대비 2.0p 소폭 상승했으나, 이는 연말을 맞아 경제 활력에 대한 모멘텀의 부재로 뚜렷한 추세를 없이 보합세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의 경우 2019년 12월 경기전망은 전월보다 5.0p 하락했으나, 비제조업은 전월보다 10.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분	'19.7월	'19.8월	'19.9월	'19.10월	11월(B)	12월(C)	전월비(C-B)
전산업 업황전망 SBHI	80.2	77.6	78.3	86.6	87.3	89.3	▲2.0
업종별	제조업	82.7	76.1	75.4	82.4	90	▼5.0
	비제조업	76.8	79.5	82.1	92.0	83.9	▲10.7
	건설업	40	66.7	66.7	66.7	75	▼8.3
	서비스업	81.9	81.0	84.0	95.0	85.0	▲13.0

제조업은 전월보다 10.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건설업은 전월보다 8.3p 하락,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13.0p 상승하는 등 산업간 등락이 었 깊었다.

항목별 전망을 살펴보면, 내수판매(85.7~88.9), 수출(104.5~96.4), 영업이익(82.9~87.3), 자금사정(87.3~88.5) 전망에서 수출을 제외한 내수 판매 및 영업이익, 자금사정은 상승

했고, 역계열인 고용수준(97.2~94.8) 전망은 2.4p 하락하여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9년 12월의 중소기업의 경영여로(복수응답) 응답을 살펴보면 '내수부진'(80.2%), '인건비 상승'(27.8%), '계절적 비수기'(23.8%), '업체 간 과당경쟁'(24.6%), '자금조달 곤란'(9.5%), '원자재 가격상승'(18.3%)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여성기업 확인제도 홍보 나서기로

지난 10월 '여성기업지원 법률 시행령' 시행 전북지역 확인서 발급 업체 저조에 따라

지난 10월 24일부터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기업이 아닌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및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장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됐다.

기존에도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여

성기업은 수의계약 한도가 일반기업에 비해 높고 공공기관 입찰 시 가격이 부여되며 판로 확대를 위한 TV홈쇼핑 지원, 컨설팅 및 교육 등의 혜택이었다.

다만, 이런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체는 전국 3만8001개 대비 1612개(4.2%)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더 많은 여성기업들이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여성기업 확인제도 홍보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여성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과장(063-210-6415)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063-272-9979)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과장과 박준영 과장은 "여성기업 인정 범위가 협동조합까지 확대되고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근절되는 계기도 마련된 만큼, 도내의 많은 여성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활용하여 활발한 기업활동을 펼칠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언제든지 외화 담고 꺼내 쓰기 가능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내맘대로 외화BOX' 출시

고객이 필요할때 환전,기간 제한 없이 보관 가능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고객이 원하는 때 외화를 환전해 기간 제한 없이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꺼내쓰는 외화환전 및 보관서비스인 '내맘대로 외화BOX'를 출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내맘대로 외화BOX'는 올원뱅크 전용상품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과

객이라면 누구나 24시간 연중 무휴 이용이 가능하며, USD와 JPY, EUR, CNY 등 총 14개 통화를 하루에 2천 달러까지 담을 수 있고, 최대 1만달까지 기간 제한 없이 보관할 수 있다.

별도의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보관 중인 외화가 필요하면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현찰로 수령할 수 있고, 원화로 즉시 꺼내 본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할 수도 있다. USD, JPY, EUR 통화는 90%, 기타통화는 40% 우대환율을 적용한다.

김장근 본부장은 "해외여행을 위해 미리 조금씩 환전하여 보관하는 임직원들에게 '내맘대로 외화BOX'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올원뱅크,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고객센터(1661-3000, 1522-3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오른뱅킹 오픈미션 클리어 이벤트
2019.12.29(일) ~ 2020.1.3(금)
오른뱅킹 계좌생성하면 최대 1만원 캐시백
이벤트 참여하면 클리어 포인트가 나옵니다
전산업 7개년(2019~2025) 50% 성장 목표 달성

오른뱅킹 오픈미션 클리어 이벤트 진행

전은, 창립 50주년

오른뱅킹 출시 기념

오늘부터 두달 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창립 50주년 및 오른뱅킹 출시를 기념하여 '오른뱅킹 오픈미션 클리어 이벤트'를 12월 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달 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간 중 오른뱅킹 서비스를 통해 타행계좌 등록, 예적금 가입, 세금 및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 등의 미션 달성 횟수에 따라 응모권을 부여하고 추첨을 통해 갤럭시 폴드, 다이슨 드라이기, 에어팟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추가로 모든 오픈미션 클리어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3만원의 캐시백이 지급된다. 또한 오른뱅킹 출시 기념으로 오른뱅킹 등록계좌 건당 최대 1만원의 랜덤 캐시백을 지급하며 전자금융 신규 가입 고객에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평생면제 및 OTP 무료발급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전북은행 오른뱅킹 서비스는 뉴스마트뱅킹 앱(APP)을 이용하여 타은행 계좌 조회 및 이체 등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계좌통합조회(Account info)와 연계하여 등록 및 조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콜센터, 홈페이지, 뉴스마트뱅킹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공간정보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식

LX는 최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공간정보아카데미(원장 김진수)에서 '제6기 공간정보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과정 수료식'을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었다.

올해로 6회 째를 맞이하는 이 과정은 공간정보 관련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료 교육생은 모두 28명이다. /김윤상 기자

10월 도내 광공업 생산 감소세

통계청, 전년 대비 7.1% ↓

대형소매점 판매도 8.2% ↓

전북의 광공업 생산과 출하, 대형 소매점판매액이 9개월 이상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10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광공업 생산이 7.1%, 광공업 출하와 재고는 각각 6.1%, 2.1% 줄었으며 대형 소매점 판매가 8.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음료(13.1%), 식료품(1.1%), 전기장비(7.8%)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16.3%), 화학제품(-6.4%), 1차금속(-12.2%) 등이 감소했다.

또한, 광공업 출하는 식료품(6.0%), 음료(12.7%), 금속가공(5.0%) 등에서 늘었지만 자동차(-14.6%), 1차금속(-10.6%), 화학제품(-6.1%) 등에서 줄었다.

광공업 재고는 전기장비(82.8%), 금속가공(115.1%), 화학제품(6.1%) 등에서 증가하고 자동차(-5.5%), 기계장비(-17.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22.4%) 등에서 감소했다.

아울러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9개월 연속 가전제품, 의복, 식료품 등 전 품목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대형소매점 상품군별 주요 증감내역은 오락·취미·경비용품(-15.1%), 가전제품(-12.4%), 의복(-11.8%), 음료(-7.6%), 기타상품(-4.6%), 신발·가방(-2.7%), 화장품(-2.3%) 순으로 나타났다. /정다은 기자



전북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이 주최한 '2019년 도전! 새만금 환경사랑 골든벨 왕중왕전' 대회가 최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내가 새만금 환경 전문가'

전북환경보전협회, '도전! 골든벨 왕중왕전'

전북환경보전협회(회장 이선홍)가 주관하고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선화)이 주최한 '2019년 도전! 새만금 환경사랑 골든벨 왕중왕전' 대회가 최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2017년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환경골든벨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습효과가 높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0개교 약 1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선전을 실시하였으며, 예선전을 거쳐 올라온 68명의 학생들이 각자 학교의 명예를 걸고 왕중왕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전북환경보전협회 이선홍 회장은 "이번 환경퀴즈 활동을 통해 참여 학생들

의 친환경 실천에 대한 의식 고취와 미래세대의 환경 인재의 기초가 되는 환경 소양을 함양하고,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환경보전에 더욱 관심을 두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왕중왕전에서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5학년 윤신비 학생이 점진 끝에 골든벨을 울려 환경부장상과 상금30만원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부안초등학교 6학년 김축복 학생, 고창초등학교 5학년 김태인 학생이 전북지방환경청장상과 상금20만원, 장려상에는 전주여울초등학교 6학년 이유노 학생, 전주여울초등학교 6학년 김희성 학생, 군산용문초등학교 6학년 김은서 학생이 전북환경보전협회장상과 부상금 10만원을 수상했다. /김윤상 기자